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 Vision 2005

IPS · 웹 보안 · UTM · 보안 관리 등 10개 세션 진행...
IT 업계 관계자 약 500여명 참가

차세대 보안 기술 · 시장 분석으로 열기 뜨거워

- 주제 : IPS /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 UTM / 보안 관리 등
- 일시 : 2005년 3월 16일(9:00~17:40)
-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아모니홀룸
- 주관 : 주간 NETWORK TIMES
- 세미나주최 : 리드웨어, 에이피(보안), 엑스퍼트, 링크스(아미비전), 키카드, 이글루서클라리, 제트포인트, 보리넷, 현대기술(비밀보안), 뉴네트웍스, LG서비스
- 공동주최 : 오비스텔코, 엘렉스테크, 삼성디지털

지난달 16일 NETWORK TIMES가 주최한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 Vision 2005' 세미나가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PS ·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 UTM · 보안 관리'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윌과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기업의 사업연속성을 보장해 줄 차세대 통합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IPS,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보안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향후 전망, 기술적인 특성과 효율적인 구성방안, 적용사례 등 알찬 정보로 가득찬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그 열띤 세미나의 현장으로 들어가본다. | 글 - 정운정 기자 - kang@datanet.co.kr |

사진 - 김구룡 기자 - photoi@datanet.co.kr |

이번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전산 관리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체계적인 대안 제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통합보안 시장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많은 보안장비와 솔루션의 홍수속에서 어떤 보안장비로 어떤 정책을 적용해야 효율적인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지 막연했던 고객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세미나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IT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에 대한 주제 발표가 심층적으로 논의됐으며, 통합 네트워크 보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보안 관리(ESM) 솔루션 등에 대한 기술 및 시장 동향, 전망, 활용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등 차세대 보안시장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료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의 기업 전산 관리자와 IT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세대 보안 기술과 시장 트렌드가 핫 이슈임을 알 수 있었다.

보안시장 새로운 이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번 세미나는 F5네트웍스코리아의 양경운 차장이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시장 및 기술 전망'을 발표하며 막을 올렸다.

양경운 차장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데이터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며 패러미터 탭핑, 루키 포이즈닝,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핑, SQL 인젝션 등 대표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을 통해 이를 차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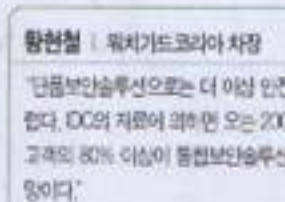
양 차장은 "SSL 가속이 내장된 전용장비, 알려진 공격 및 타겟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대한 인지능력 등이 갖춰진 전용장비를 갖춰야만 변화하는 사용자의 웹 환경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웹 환경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는 것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정책실정과 전용보안 장비의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시큐리티 온 디맨드' 시대를 위한 지능형 계층



양경운 | F5코리아 차장

"알려진 공격 및 타겟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대한 인지능력 등이 갖춰진 전용장비를 갖춰야만 효과적인 웹보안이 가능하다."



황현철 | 워치가드코리아 차장

"단종보안솔루션으로는 더 이상 안전한 보안을 이룰 수 없다. IDC의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07년이면 기업 고객의 80% 이상이 통합보안솔루션을 도입할 전망이다."



보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워치가드코리아의 황현철 차장은 "최근 보안 침해사고는 다양한 요소의 해킹 기술이 통합, 가공됨에 따라 전파속도와 제로데이 공격,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공격 증가 등 조직화, 대형화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대형화해가는 고객을 하나하나의 장비로 각각 대응하기는 어려워지며 인력, 예산 등의 문제가 겹쳐져 단종 보안 솔루션보다는 통합보안장비를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종 보안 솔루션으로는 안전한 보안환경을 구현할 수 없다"며 "IDC의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07년이면 기업 고객의 80% 이상이 통합보안솔루션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보안 관건은 '통합·고성능·고효율'

다음으로 역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 강연한 체크포인트코리아 김성철 차장은 '보안의 새로운 영역(New Era for Your Security)'이라는 제목으로 자사의 웹 방화벽 '키넥트라'와 통합보안 장비 '인티그리티' 등을 소개했다.

김 차장은 "인터넷 포털의 증가, 익스트라넷 포털, SSL, VPN 기반의 웹 액세스 등 웹 환경의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



어 웹 방화벽, 샌드포인트 보안 환경에 대한 보장은 더욱 중요한 시안이 돼 가는 형편'이라며 "지능형 웹 환경을 수용하며 최종사용자를 단일 보안할 수 있는 융합된 보안 장비, 써드파티 솔루션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 IPS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전 세션의 마지막 강사로 나선 라드웨어코리아의 이상식 부장은 '멀티기가비트 환경에서의 라드웨어 IPS 솔루션 소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상식 부장은 "원의 출현, 애플리케이션 계층 보안솔루션이 등장했던 초창기를 지나 다양한 형태의 보안위협 확산과 다계층 스위치가 범용화돼 가는 확장기를 지나, 멀티기가비트 성능의 IPS를 도입하고 기능이 다변화돼가는 통합화기를 맞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IPS 관련 이슈였던 어노멀리 공격, 세션, 시그니처 기반의 공격 방어, 모니터링 및 리포팅 등의 이슈도 대응방드래픽 환경에 일맞는 고성능, 신종 침입에 대한 정확한 차단, 안전성과 고효율성, 현지화 등에 대한 요건으로 고객 요구사항이 변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지난해까지 IPS를 고려하던 고객들이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IPS 도입을 꺼렸으나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라드웨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IPS 벤더들이 고성능, 고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가비트 기반의 IPS 제품을 속속 공급하는 추세"라며 "네트워크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멀티 세그먼트 지원을 통한 고효율성, 한글화된 보고기능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철 | 씨코포인트코리아 차장

'웹 기반 비즈니스가 갈수록 늘어나며 지능형 웹 환경을 수용하며 최종사용자를 단일 보안할 수 있는 융합된 보안 장비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



이상식 | 라드웨어코리아 부장

'성능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고성능, 고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가비트 기반의 PS 제품은 더욱 늘어날 것'

진화하는 네트워크에 발맞춰 IPS 발전 '속속'

오후 세션의 문을 연 한국백아피 김현수 부장은 '차세대 IPS의 안정적 운영과 진화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에 대해 설명했다.

백아피는 최근 DoS, 제로데이어택, 웜, 비커 오버플로우, P2P 애플리케이션 등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위협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보안문제의 뿌리인 취약성을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면 기업 보안의 9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단일 스캔, 단일 사용자만을 사용해 결과물을 단순한 보고서로 제공하는 취약성평가(VA)와 지속적인 스캔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다중 사용자 불을 지원해 단순 보고서가 아닌 사용자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교정해주는 취약성관리(VM) 솔루션은 엄연히 다르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으로 위협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업의 연속성을 가능케하는 취약성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리스크 관리 솔루션이 차세대 IPS의 중요한 조건으로 부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부장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제공하는 백아피의 퍼폰드스톤과 호스트 IPS, 네트워크 IPS 여기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백아피의 보안 솔루션은 고객의 네트워크부터 시스템, 개인 PC까지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트워크 보안과 IPS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연식 LG엔시스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정보보호 현황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의 변화를 비롯 네트워크 IPS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IPS를 실제적으로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은 사후 방어, IP/포트 기반의 차단과 패킷/세션 처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며 "패킷 처리 알고리즘 기반의 전용하드웨어 방화벽, IDS 등이 등장했지만 이 역시 패킷/세션 처리속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용 패킷 프로세서 기반의 IPS로 패킷/세션 처리 손실을 최소화하며 탐지 즉시 차단하고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변화하는 고객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보안 시스템의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류 연구원은 기존 올인원 통합보안 솔루션은 플랫폼 서버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 별 보안 솔루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10기가비트 등으로 변화해 가는 사용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퍼포먼스를 높인 10기가비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IPS의 등장, VoIP 등 복잡한 트래픽에도 확실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QoS, 트래픽 제어의 강화 등이 보장되는 IPS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비만으로는 부족, 통합보안 관리 더욱 중요

다음으로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시작된 오후시간의 세 번째 세션은 'UTM 시장 및 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포티넷코리아 이종열 부장이었다. 이 부장은 지난 2002년 국내에 진출한 포티넷은 2003년부터 3번째로 통합

보안이라는 주제로 NETWORK TIMES의 차세대 보안 솔루션 세미나에 참석했던 포티넷을 기억하는지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질문했다.

그는 "지난 2003년 NETWORK TIMES의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 Vision' 세미나에서 통합보안을 이야기했을 당시 통합보안에 대해 낯설어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통합보안을 이야기한다"며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라는 이름에 맞게 포티넷은 차세대를 이야기한다. 지금은 UTM에 대해 낯설어하지만 앞으로는 UTM이 전용화된 보안 솔루션의 대표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포티넷은 UTM은 포티넷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조사기관인 IDC에서 구분한 보안 기술과 서비스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보안관리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하며 오는 2008년이면 UTM 보안 솔루션이 기존 방화벽, VPN, IDS 등의 단품 보안 솔루션을 몰아내고 전체 보안시장의 약 46%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장은 "UTM 장비로서의 포티넷은 설치한 후 설치한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어도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라고 덧붙였다.

'조기경보시스템 기술동향'이라는 주제로, 효율적인 보안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에 나선 이글루시큐리티 이용균 소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정의와 활용분야, 이벤트 표준화 등과 조기경보시스템의 비주얼 모델을 직접 시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조적의 업무연속성을 위한 일련의 세련 위험관리 활동을 통칭하며 이런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한 것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기경보시스템의 시브 시스템으로는 트래픽 분석시스템, 이벤트 분석시스템, 취약성 수집시스템, 전파/알림 시스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벤트 표준화와 드래피어 의한 이상 징후 탐지 및 분석기법, 분해리스트 추출 기법, 공격수준 평가 모델, 시각화 등으로 세부 연구분야를 나눌 수 있다.

카이스트, ETRI 등에서 직접 구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모델을 보여주며 이용균 소장은 "아직 3D



김현수 | 한국에이피 부장

"보안문제의 주된 위험성을 발견하고 이를 근원적인 기업 보안의 9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류연식 | LG네트웍스 책임연구원

"전용 패킷 프로세서 기반의 IPS로 패킷처리 속도 손실을 최소화하며 탐지 즉시 차단하고 처리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종열 | 포타넷코리아 부장
 "지금론 UTM에 대해 낯설어하지면 앞으로는 UTM이 범용화한 보안 솔루션의 대표적인 솔루션 이 될 것이다."



이용균 | 이글루시큐리티 소장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조직의 업무연속성을 위한 일련의 제반 위협관리 활동을 통합하여 이런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한 것을 지칭한다."

등의 모델 구현까지는 못 미치지던 점차 연구가 진행돼 다양한 시각화가 진행된다면 우리 사이트에서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어디서 공격이 시작됐고 이런 공격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IPS의 진화는 계속된다

다음으로 IPS의 '발전방향과 트렌드(Behavior-Based IPS로의 진화)'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엑스퍼넷 문옥산 차장은 IPS의 이해 및 진화의 필요성, IPS 구현 기술, 효율적인 IPS의 요건, 리시치, 행동 기반 IPS로의 진화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 차장은 "방화벽, VPN 등 기존 보안 제품들의 시장은 정체 상태에 이른 반면 IPS는 통합장비, 지능형 IPS 등으로 변화해가며 오는 2010년까지 가파르게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IPS는 향후 보안의 트렌드인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장비로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반이 아닌 스위칭 패브릭 기반의 네트워크 시큐리티 플랫폼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 차장은 "스위치 기반의 IPS는 10기가비트 이상의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어야하며 스위칭 패브릭 기반, ASIC, SOC(System-on-Chip) 기반, I/O 인터페이스, 범

용 CPU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며 "IPS는 리시치 기반의 IPS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행동(Behavior) 기반으로 기존 시그니처 기반 IPS의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으며 행동 기반 IPS로의 진화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돼 내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던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 Vision 2005' 세미나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베기술 권덕소 이사는 '모던 DoS/DDoS 프로텍션(Modern DoS/DDoS Protection)'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권 이사는 "새로운 보안 요구는 IT 역량을 초과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보안물로는 오늘날의 보안 문제를 완화시키기 어렵다"고 권제하고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명백해지며 이에 따라 IPS 솔루션이 등장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IPS의 DoS/DDoS 방어 방법, TCP 썬 플로드(SYN Flood), 트래픽 어노발리와 쓰레숄드 프로텍션(Threshold Protection), DoS/DDoS 톨을 사용한 클라이언트 방어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김창오 한베기술 과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파이웨어의 종류와 방어방법, 타겟포인트의 안티 스파이웨어 툴, 타겟포인트가 제안하는 기업 스파이웨어 방지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차세대 보안 기술 정보 공유 장으로 자리매김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보안 분야의 선두 업체 약 10여개가 참여한 만큼 그 내용이 다채로웠고, 리딩 컴퍼니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려 약 500여명 이상의 기업 전산 관리자 및 유수 IT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이 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참석자가 대부분이라 차세대 통합보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미나 후원업체들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직결 보안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데모 부스를 운



영향으로써 보안 분야의 기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체크포인트는 최근 출시한 자사의 무선랜 기능을 가미한 '세이프넷오피스', 웹 방화벽과 SSL VPN 기능이 가미된 '키넥트라', '인티그리티' 등을 전시했으며 한메기술은 아직 국내에 미발표된 터링포인트의 5기가비트를 지원하는 IPS인 '5000R' 등을 공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F5네트웍스는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관리제품인 'BIG-IP', SSL VPN '파이어패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장비 '트래커실드' 등을 전시했고 한국액아피의 디스트리뷰터인 코코넛은 '인드루이드 IPS' 장비 등을 시연했으며, LG엔시스의 '세이프넷 IPS' 등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라트웨어의 L7 보안 스위치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II', IPS 제품인 '디펜스프로'의 시연과 이글루시큐리티의 '조기경보시스템' 및 ESM 시스템 시연, 엑스퍼넷의 '레드엑스 IPS' 등의 시연에도 많은 참석자들의 발길이 머물렀으며, 세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전시에만 참여했던 퀵미디어의 '내부자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해서도 새로운 솔루션으로 참석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위해 50인치 PDP를 준비, 동영상 등을 시연한 위치가드테크놀로지과 새넬인 플리스아이티에스의 부스에도 많은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UTM 솔루션을 표방하는 포티게이트 장비를 전시, 시연한 포티넷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정보 제공에 충실했던 강의 내용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데모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안 효과적인 보



문옥산 | 엑스퍼넷 차장

'IPS는 통합장비, 지능형 PS 등으로 변화해가며 오는 2010년까지 거대하게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전억초 | 한메기술 이사

'전통적인 보안으로는 오늘날의 보안 문제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이제 여러 PS 솔루션이 등장하게 된다.'

안정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사용자들에게 IPS와 네트워크통합보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ESM 등의 보안 관리 솔루션 등의 구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 등 3백자가 고무어우러진 가운데 열린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 Vision 2005' 세미나는 효율적인 보안정책 및 활용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뜻 깊은 자리였다.

한편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안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92명의 응답자가 IPS를 꼽아 61.3%로 IPS는 지난해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분야로 기록됐다. 다음으로 통합보안장비 30명(20.0%), VPN 11명(7.3%), 기가비트 방화벽 8명(5.3%), 안티바이러스솔루션 7명(4.7%) 기타 2명(1.3%)였다.

올해 국내 보안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IPS가 58명(38.7%)의 응답을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통합보안장비라는 응답도 52명(34.7%)를 나타내 막상막하의 결과를 자아냈다. 또 SSL, VPN을 지목한 응답자는 25명(16.7%), 기가비트 방화벽 6명(4.0%),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4명(2.7%), 홈네트워크 보안 3명(2.0%), 기타 2명(1.3%)의 순이었다.

최근 보안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P2P 등 악성트래픽이라는 응답이 55명(36.7%)로 가장 많았으며 웬이라는 답변이 37명(24.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스펠메일 30명(20.0%), 바이러스 13명(8.7%), 해킹 12명(8.0%), 기타 3명(2%)였다.

보안 장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역시 보안장비의 본연의 기능이 우수해야한다는 응답이 48명(32.0%)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성 40명(27.0%), 처리 속도 38명(25.3%), QoS 12명(8.0%), 리포팅 9명(6.0%) 등이었다. 향후 각 고객군별로 보안 시장이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약 39명(26%)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꼽았으며 금융기관 29명(19.3%),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이 26명(17.3%), 기간통신사업자 20명(13.3%), 공공기관 26명(17.3%), 대학 10명(6.7%)의 순이었다.

국내 보안시장 성장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고객반응도 및 대응체계 강화(54명 36.0%)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40명(26.7%), 사업다각화 및 신제품 개발 28명(18.7%), 비용절감 13명(8.7%) 등을 지

목했다. 이번 세미나가 가장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새로운 보안 기술 트렌드를 알게 됐다는 응답이 54명(3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보안 시장 트렌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는 응답이 53명(35.3%), 사업에 유익한 실제적인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33명(22.0%) 등이었다.

향후 세미나 개최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89명(59.3%)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장정보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35명(23.3%) 등이었다.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 Vision 2005 설문조사결과

(전체 150명 응답)

● 지난해 보안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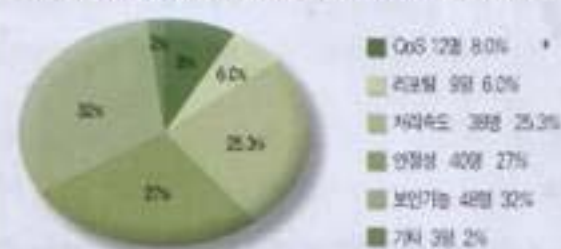
● 올해 국내 보안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 최근 보안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보안 장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국내 각 고객군별로 보안사업이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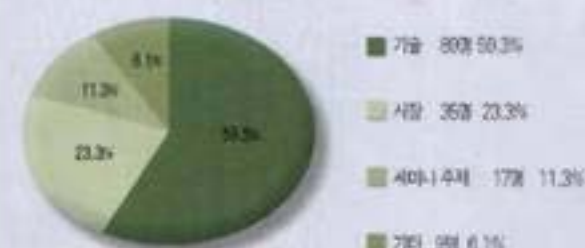
● 국내 보안시장 성장에 가장 시급한 것은.



●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면에서 그했습니까?



● 향후 세미나 개최에 대해 어떤 점의 보강을 원하십니까?



(자료 : NETWORK TIMES)

기업 규모 · 산업별로 최적화된 차세대 통합보안 솔루션

포티넷코리아(대표 김종덕)는 안티 바이러스원, IPS, VPN, 방화벽, 콘텐츠 필터링, 트래픽 관리 기능, 스팸메일 차단 등의 기능들을 하나의 박스로 통합시킨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보안 솔루션 포티게이트 시리즈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재택근무/소호(SOHO)를 위한 포티게이트 안티바이러스-IPS(포티게이트-50A, 포티게이트-60, 포티게이트-100, 포티게이트-200)는 배치와 사용이 편리한 솔루션으로 소규모 사무실이나 재택근무, 지사나 지점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탁월한 가치와 성능을 발휘한다. 포티게이트의 설치 마법사는 사용자가 간단한 설치과정만으로 거의 모든 설치와 사용까지 몇 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해준다. 30Mbps에서 120Mbps까지의 처리율을 가지고 있는 포티게이트-50A, 60, 100은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매우 강력한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포티게이트 엔터프라이즈 제품군(포티게이트-400A, 포티게이트-500A, 포티게이트-800, 포티게이트-1000)은 성능 및 신뢰도 측면에서 기업수준의 요구조건에 맞추고 있다. 모델별로 처리율이 200Mbps에서 1Gbps에 이르는 다양한 모델과 세션손실이 없는



▲ 포티게이트 시리즈

자동 안전차단 등의 탁월한 특징은 기업의 중요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한 최적의 제품이다.

10Gbps 이상의 처리율을 지원하는 포티게이트-4000 안티 바이러스 IPS 장비는 ISP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기가비트 IPS와 안티 바이러스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장비로서 IPS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포티넷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포티게이트-4000보다 훨씬 강화된 포티게이트-5000을 지난해 9월에 출시했다. 포티게이트-5000은 급증하고 있는 ISP의 트래픽 용량을 고려해 디자인된 것으로 대기업과 통신업체, 관리서비스공급업체(MSP)의 네트워크, 엣지 또는 코어 배치에 맞게 개발된 제품군이다.